

2018년 11월 1일

모든 성인 대축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오늘 우리는 다함께 천국의 모든 성인을 기념하고 있다. 너희가 이렇게 나와 함께 모든 성인을 기념하는 이때, 다가오는 중간 선거와 너희 나라로 들어오고자 밀려드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에서 의로움이 승리하도록 성인들에게 중재 기도를 청하여라. 기도는 사건과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킨다. 사악한 자는 너희가 더욱 깊이 기도하는 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이 사실을 너희에게 숨기려 한다.”

“이 두 가지 매우 중요한 문제들을 너희의 사랑하는 아버지인 내게 의탁해 다오. 너희의 내맡김(의탁) 안에 내 힘과 내 승리가 있다. 내가 흥해를 가를 수 있다면(탈출 14) 당연히 또한 진리를 지지하도록, 그리고 진리가 옹호하는 선을 지지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 나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문제에 관해서 내 뜻이 실행될 것임을 믿어라. 이 신뢰가 너희의 기도에 영향을 주게 하여라. 너희의 신뢰는 승리를 얻기 위한 내 무기다. 나는 너희가 너희의 신뢰라는 무기를 내 손에 쥐여 준 점에 미리 감사를 표한다.”

#### + 성경 구절 독서 (시편 5:11-12):

하느님, 그들이 짓밟을 받게 하소서. 자기들의 음모에 빠지게 하소서. 그들의 최악이 많으니 그들을 내치소서. 정녕 그들이 당신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신께 피신하는 이들은 모두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환호하리이다. 당신 이름 사랑하는 이들을 당신께서 감싸 주시니 그들은 당신 안에서 기뻐하리이다.

2018년 11월 2일

위령의 날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마음 속에 품고 있는 모든 청원을 신뢰로써 내 부성적인 성심의 내밀한 곳에 의탁해야 함을 부디 깨닫기 바란다. 내 신성한 뜻에 대한 신뢰는 너희가 내게 주는 선물이다. 그리고 나는 현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에 따라 내 뜻을 조정함으로써 그 선물에 보답한다. 이렇게 해서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신뢰의 내맡김은 내가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또 너희를 위한 내 뜻을 깨닫도록 너희를 도와주기 위해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가끔 너희는 너희가 갖지 말아야 할 것을 내 성심에 청한다. 너희의 부성적인 하느님으로서 나는 모든 것을 전능한 힘으로 다스린다. 나는 너희의 모든 필요에 대한 응답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많은 경우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너희의 신뢰는 모든 기도 청원이라는 태피스트리의 마지막 바늘땀을 완성시킨다. 신뢰는 내 뜻을 받아들인다.”

“너희의 청원들은 너희의 기도에 힘을 실어주며 나와 너희 사이에 유대를 형성한다. 오, 나의 신성한 뜻을 신뢰하는 영혼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 성경 구절 독서 (로마 8:26-28):**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마음속까지 살피보시는 분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2018년 11월 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특히 인생의 풍파를 겪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내 부성적 성심의 보호를 신뢰하여라. 사탄은 너희의 신뢰를 파괴함으로써 내게서, 그리고 너희를 위한 내 신성한 뜻에 대한 너희의 사랑으로부터 너희를 낚아채려 한다.”

“사탄은 여러가지 상황이나 낙담, 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너희를 내 성심의 깊은 곳에서 낚아채려 한다. 그자는 내 부성적 성심이 바로 내 신성한 뜻이라는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다. 너희 주변 세상이 내 뜻 즉, 내 계명에 적대적인 것처럼 보일 때마다 너희는 사탄이 거기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 혼란은 사악한 자의 지문이며, 분열은 그자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폭풍우 속에서 모든 위험을 피해가도록 배를 조종하는 선장처럼 내 뜻에 대한 너희의 신뢰는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너희를 인도한다.”

“너희 각자에 대한 내 사랑이 나로 하여금 지상에 내려와 너희에게 이 말을 해 주게 하였다.”

**+ 성경 구절 독서 (2 티모 3:1-5):**

이것을 알아 두십시오. 마지막 때에 힘든 시기가 닥쳐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돈만 사랑하고 허풍을 떨고 오만하며, 남을 중상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 모르고 하느님을 무시하며, 비정하고 매정하며, 남을 험담하고 절제할 줄 모르며, 난폭하고 선을 미워하고 배신하며, 무모하고 교만하며, 하느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면서, 겉으로는 신심이 있는 체하여도 신심의 힘은 부정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멀리하십시오.

2018년 11월 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내 부성적 성심은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이 내 성심 안 깊숙한 곳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갈망에 불타고 있다. 오직 그때에만 비로소 세상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는 국경의 소멸에서 평화를 찾을 수 없다. 그것은 확실히 혼란만 초래할 뿐이다. 이제는 수많은 나라에 존재하는 폭력은 오직 더 많은 폭력을 낳기 때문이다.”

“나의 중재의 힘을 신뢰하여라. 내가 노아를 따로 떼어 그와 그의 가족을 홍수로부터 구한 사실이 있지 않느냐? 이와 마찬가지로, 나는 믿는 이들에게 나의 성심이라는 안전한 곳으로 들어오라고 부른다. 남은 신자들은 언제나 진리 안에서 살도록 이미 나의 성심 안에 있다. 이제, 나의 부름은 세상의 마음에까지 다다른다. 나는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이 스스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자멸의 길로부터 그들을 구하고자 한다.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과 신뢰를 가지고 나의 간청에 귀를 기울여라. 나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위엄과 신성한 사랑을 가지고 너희에게 요청한다.”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2:19-22):**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외국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 한 시민이며 하느님의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서는 바로 모퉁잇돌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가 잘 결합된 이 건물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요즘 너희 나라(미국)는 망명을 요청하는 수천 수만의 군중의 공격으로부터 남쪽 국경을 지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국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기에 이것은 정당한 일이다. 너희 마음의 경계 또한 보호되어야 하는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영혼밖에 없다. 어떤 군사 행동도 마음이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마음이 무엇을 믿든지 그것은 주변 세상으로 넘쳐 흘러들어간다. 내 뜻을 받아들이는 영혼은 자신의 마음을 극단주의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그는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과격해지지 않는다. 내 뜻은 너희 마음의 경계를 보호해주기를 원한다. 너희가 그것을 허락한다면 너희는 진보주의에 의해 잘못 인도되지 않을 것이며, 너희의 삶은 내 뜻을 반영할 것이다.”

“다른 이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 하지 말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하여라. 내 신성한 뜻 곧, 내 계명에 대한 순종의 모범이 되어라. 이것이 모든 공격이나 어려움 속에서 너희의 방어 수단이다. 그러면 너희 마음의 경계는 원수의 맹공격으로부터 보호될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5:15-17):**

그러므로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시간을 잘 쓰십시오. 지금은 악한 때입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2018 년 11 월 6 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역사를 통틀어 인류의 행로는 자유의지 선택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 모든 시대를 통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다. 수많은 독재자들이 자유의지 선택으로 권세를 얻었으며, 나라 전체가 인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무너진 적도 있었다. 오늘 너희 나라(미국)는 정부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투표를 한다. 그리고 이 지도자들은 너희 대통령(트럼프)을 지지할지 반대할지를 선택할 것이다. 오늘 사람들의 선택이 너희 나라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나는 너희 나라 전역의 투표소에 천사들을 배치하고 있다. 한 정당은 속임수와 권력욕에 차 있고, 다른 정당은 국민들의 안녕을 위한 의욕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차이를 깨닫는 지혜를 얻기 위해 기도하여라.”

“인류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택은 자신의 구원을 위한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반대가 되는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 선택은 수많은 순간 순간의 작은 선택들로 이루어진다. 내 신성한 뜻을 받아들이는 이들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한다. 이들은 완전한 겸손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이들이며, 지혜롭게 거짓은 거짓으로 분별한다. 또한 진리의 타협 대신 내 승리를 선택한다.”

“나는 투표소에 배치한 전투 천사들의 마음에 지혜를 넣어주어 유권자들에게 선과 악의 차이를 깨닫도록 지혜를 전해주고 있다. 내가 주는 은총에 모든 이가 마음을 열도록 기도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창세 3:1-7):**

뱀은 주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에서 가장 간교하였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이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하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 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그 둘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두렁이를 만들어 입었다.

**+ 성경 구절 독서 (지혜 17:11-12):**

악이란 비열한 것으로서 제 입으로 자신을 단죄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늘 어려움을 더해 가지만 합니다. 두려움은 이성의 도움을 포기하는 것일 따름입니다.

2018년 11월 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제 유권자들의 선택은 너희 대통령(트럼프)을 약화시키겠지만 무력하게 만들지는 못할 것이다. 나쁜 선택 또한 언제나 내 뜻에 의해 허용된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흥해를 가른 이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나는 선에게 승리를 안겨주기 위해 상황들을 바꿀 수 있다. 가장 큰 싸움은 진리와 진리에 대한 모든 타협 사이의 싸움이다.”

“자녀들아, 항상 나의 신성한 뜻이 너희 마음을 특정짓게 하여라. 내 뜻은 곧 내 계명이다. 내 계명에 대한 순종이 너희의 힘이다. 내 뜻에 반대하는 모든 것은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나는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을 내 부성적 성심 속 깊이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때에 너희는 세계 정세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내 뜻에 따른 선택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장차 너희는 내가 선을 보호하고 악에 도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 + 성경 구절 독서 (마태 7:21):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 + 성경 구절 독서 (루카 8:21):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2018년 11월 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대통령(트럼프)은 8년이라는 오랜 고통(수난, passion)의 시간 후에 너희 나라(미국)의 마음과 영혼을 부활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위대한 나라의 마음을 갈보리(Calvary)로 되돌아오도록 부르는 이들이 아직 존재한다. 이 대규모(캐러밴 이민자들) 집단 이동 배후에 있는 이들은 다시 찾아온 수난의 한 부분이다. 우리는 더이상 정체가 불분명한 대중을 이 나라에 받아들임으로써 십자가 발치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교회는 지금 수난(passion)을 겪고 있다. 나는 남은 신자들이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꺼이, 교회가 십자가를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믿는다. 남은 신자들은 ‘남은 신자들의 모후’인 거룩한 성모와 함께 십자가의 발치를 지키고 서 있어야만 한다. 거룩한 성모는 참된 신앙이, 항상 선을 가장하는 수많은 방식으로 모독을 당하는 것을 보며 애통해 한다.”

“오 지상의 인간들아, 너희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남은 신자들 안에서 서로 일치하여라. 너희의 미래가 이것에 달려 있다.”

#### + 성경 구절 독서 (2 테살 2:13-15):

주님께 사랑받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때문에 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첫 열매로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라고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형제 여러분, 굳건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2018년 11월 9일

####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먼저 나를 사랑해야만 내 신성한 뜻을 신뢰할 수 있다. 모든 덕은 사랑의 기초 위에 세워진다. 신뢰는 인내, 끈기, 겸손 등 모든 덕을 뒷받침해준다.”

“거룩한 사랑은 사탄이 너희의 개인적 거룩함의 핵심 곧, 성덕의 삶의 완성을 공격할 때 너희를 보호해준다. 신뢰는 나와 내 신성한 뜻에 대한 너희의 사랑을 보여주는 지표다. 나에 대한 신뢰는 너희가 모든 현 순간을 채우는 내 신성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일이 전개되는 동안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삶의 모든 어려움은 너희가 먼저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 나를 신뢰할 때 좀 더 수월해진다.”

“나는 너희의 마음을 모든 삶의 풍파와 나를 향한 너희의 사랑에 대한 모든 시험을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는 영적인 ‘방주’로 만들기를 요청한다. 내가 방주를 만들라 요청했을 때 나를 신뢰했던 노아처럼 너희도 나를 신뢰하여라. 너희 마음의 영적 방주는 논란의 바람에 흔들리고 교활한 속임수와 거짓말이 비처럼 퍼부어질 것이다. 그러나 나에 대한 너희의 신뢰가 거룩한 사랑에 잘 기초하고 있다면 너희 마음은 어떤 폭풍우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잘 지어진 방주를 보호하고 있다.”

#### + 성경 구절 독서 (시편 1:1-6):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겨 제때에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 하는 일마다 잘되리라.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아라.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 때에,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감히 서지 못하리라. 의인들의 길은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악인들의 길은 멸망에 이르기 때문일세.

2018년 11월 1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에 대한 완전한 신뢰의 시대가 임박했다. 과거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미래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내 아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들을 시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특정 사건들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며 세상에서 안전하다 여겼던 수많은 이들을 무력하게 만들 것이다. 내가 너희의 보호다. 내 베푸는 은혜는 너희가 신뢰할 수 있는 공급원이다.”

“현세에서는 아무도 혼자 아니다. 믿지 않는 영혼이라 해도 나는 그가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은총, 또 믿는 데 필요한 은총을 베풀어준다. 너희는 바깥에 내리고 있는 눈송이들을 보고 있다. 그 눈송이들만큼 많은 영혼이,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영혼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 영혼에게 삶의 풍파가 닥칠 때 거룩한 성모의 성심을 통해 내 은총 또한 영혼에게 베풀어진다.”

“그러니 자녀들아, 마음을 편안히 가져라. 너희를 지지하고 인도하도록 너희의 천상의 아버지인 나에게 의지하여라. 너희의 필요가 더 커질수록 나는 너희에게 나의 천사들을 더 많이 보내 너희를 에워싸게 한다. 나는 큰 문제들을 큰 은총으로 바꾼다.”

#### + 성경 구절 독서 (시편 5:12-13):

그러나 당신께 피신하는 이들은 모두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환호하리이다. 당신 이름 사랑하는 이들을 당신께서 감싸 주시니 그들은 당신 안에서 기뻐하리이다. 주님, 당신께서는 의인에게 복을 내리시고 큰 방패 같은 호의로 그를 덮어 주십니다.

2018년 11월 1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죄의 영향 때문에 나보다 더 고통받는 이는 아무도 없다. 내 부성적인 성심은 내 아들의 비통한 성심과 하나로 고통친다. 자유의지는 오늘날의 도덕적 오류에 이끌려 가고 있다. 오늘날의 도덕은 대부분 내가 아니라 인간을 만족시킨다.”

“내 성심에 보상하여라. 내 성심에 보속 행위를 바침으로써 너희 구원에 투자하여라. 정치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어느 행로를 따라가는지를 염려하여라. 정치는 거의 오늘날 아주 혼란한 것이 되어버린 문란한 도덕 관념 만큼이나 나를 몹시 슬프게 한다. 사람들이 내 뜻을 진실로 깨닫는다면 온 나라가 회개할 것이다.”

“너희의 기도와 희생은 늘 나를 위로해 준다.”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5:15-19):**

그러므로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시간을 잘 쓰십시오. 지금은 악한 때입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방탕이 나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2018년 11월 1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귀를 기울여라! 나는 여느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처럼 오직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바란다. 나는 내 진노를 너희 위에 내리기를 원치 않는다. 사실 너희는 개인의 거룩함으로 부르는 내 부름에 응답하기를 꺼려함으로써,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하기를 거부하기까지 함으로써 내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 세상의 유혹이 너희의 전부가 되게 하지 마라. 나는 너희의 구원은 너희 자신의 책임이며 너희 스스로의 자유의지의 선택임을 다시 한 번 말해준다. 또한 너희의 구원은 너희가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 너희 마음속에 있는 거룩한 사랑이라는 점도 다시 한 번 말해준다.”

“너희의 세속적인 우선사항들을 바꾸라고 하는 내 부름에 응답하는 것을 미룰 수 있다고 여기지 마라. 직함과 영향력이 큰 자리나 재물 등은 모두 너희가 나의 아들의 심판좌 앞에 올 때 아무 의미가 없다. 중요한 점은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하고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 내가 너희 삶에 허락한 모든 자산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는 점이다. 아무도 자신의 죽음 곧, 마지막 심판의 정확한 시간과 날짜를 알지 못한다. 만일 내가 큰 재앙이 지상에 내릴 것이라 예언했다면 오직 어리석은 자만 대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매번 숨 쉴 때마다 너희의 마지막 심판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확실히 알고 있다.”

“나의 모든 계명의 수용인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아감으로써 지금 준비하여라. 그러면 너희의 관점이 바뀌고, 너희의 우선 순위도 바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 마음속에서 거룩한 사랑의 옥좌에 올라 너희 마음의 왕이 될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루카 11:27-28):**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군중 속에서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선생님을 배었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2018년 11월 1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아침에 기상할 때 다음의 기도를 바친다면 너희의 안녕에 매우 유익할 것이다.”



“천상의 아버지, 저는 오늘 하루를 당신의 신성한 뜻에 의탁하나이다. 오늘 하루 동안의 모든 어려움과 승리와 패배를 가져가시어 당신의 거룩하고 신성한 뜻을 통해 당신 것으로 만드소서. 아멘.”

“이 기도는 매 현 순간 나를 너희의 옹호자로 만든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함께 모든 현 순간에 직면할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히브 2:1-4):**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들은 것을 더욱더 명심하여, 빛나가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 유효하고, 그것을 어기거나 따르지 않는 자들은 모두 정당한 벌을 받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이렇듯 고귀한 구원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으로, 그것을 들은 이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었습니다. 하느님께서도 당신의 뜻에 따라, 표징과 이적과 갖가지 기적을 통하여, 또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시어 당신의 증언을 보태어 주셨습니다.

**2018년 11월 1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나라(미국)는 지금 서부 지역에서 역사적인 산불을 경험하고 있다. 나는 모든 역경은 영혼들의 유익과 그들의 구원을 위해 내가 허락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너희에게 상기시켜 준다. 나는 천국을 향해 가는 모든 영혼의 여정의 최고 설계자다. 나는 영혼이 매 현 순간 개인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딱 맞게 배정한다. 절대 '왜' 이런 저런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내 은총이 너희가 모든 어려움을 헤쳐 나가도록 도와줄 것임을 신뢰하여라.”

“인류는 흔히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십자가만 볼 뿐 십자가가 그들을 안내하는 승리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든 죄는 영혼이 내 뜻을 더욱더 잘 이해하지 못하게 만든다. 만약 너희가, 너희라면 어떤 식으로 일을 다르게 처리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너희는 내 뜻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현 순간 일어나는 일들을 받아들이는 자세 안에 내 뜻에 대한 너희의 내맡김이 있다. 모든 것을 선뜻 받아들이고 자신의 부모가 모든 문제를 돌볼 것임을 믿는 어린아이의 순진함을 한 번 생각해 보아라. 이 태도를 본받아라. 너희는 이렇게 하는 가운데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시편 4:3):**

주님께서서는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기적을 베푸심을 알아라. 내가 부르짖으면 주님께서서는 들어 주신다.

**+ 성경 구절 독서 (마태 19:13-15):**

그때에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을 그냥 놓아두어라.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사실 하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주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셨다.

2018년 11월 1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를 위한 내 뜻을 믿고 내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희가 더 거룩하게 되는 길이다. 아무것도 내 '허락하는 뜻'이나 내 '명령하는 뜻' 밖에서 일어나지 못한다. 너희에게 일어나는 일이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다 내 뜻에 의한 것이다. 인류에게 최고의 것이나 최악의 것을 허락하는 것도 내 신성한 뜻이며, 이 모든 것은 인류의 구원으로 가는 길을 연다.”

“많은 영혼이 그들을 위한 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잃는다. 그들은 자신이나 다른 이들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해 기도하기도 한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린다. 시련과 어려움은 모든 영혼의 지상 여정 속에 존재한다. 만약 이 시련과 어려움을 내 신성한 뜻의 일부로 받아들인다면 시련을 겪을 때 그 짐이 가벼워질 것이다.”

“오직 나만이 각 영혼에 관한 모든 것을 전체적이고도 완전하게 본다. 나는 그들의 믿음에 대한 시련과 그들의 슬픔, 그리고 그들의 기쁜 승리를 본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엮어 삶이라는 태피스트리(용단)를 만든다. 나의 뜻을 거부하는 영혼은 현 순간의 은총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간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영혼은 그들을 위한 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도 이해하지 못한다.”

“온 인류의 천상 아버지로서 나는 오로지 모든 영혼에게 가장 좋은 것 즉, 그들의 구원만을 바란다.”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5:15-17):**

그러므로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시간을 잘 쓰십시오. 지금은 악한 때입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2018년 11월 1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부디 너희의 구원을 위해 현 순간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라. 만약 너희가 아침마다 그날 하루를 내 신성한 뜻에 의탁함으로써 현 순간을 소중히 여긴다면 시간을 경솔하게 쓰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일상적인 일조차 너희의 구원과 세상의 마음의 회심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세상의 마음은 부나 권력, 야망 등 세상의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사로잡힌다. 죄에 대한 내 승리를 위해 각 영혼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순간은 악에 맞서는 내 무기고에 있는 무기가 된다. 최후의 승리는 물론 의로움의

것이다. 이 승리를 좇는 과정에서 패배한 전투는 영혼들을 멸망으로 이끈다. 너희의 일상 생활에서 도가 지나친 모든 것 안에 숨어 있는 사탄을 알아보는 법을 배워라.”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6:10-17):**

끝으로, 주님 안에서 그분의 강한 힘을 받아 굳세어지십시오.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서 그들에게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한 무장을 갖추십시오. 그리하여 진리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의로움의 갑옷을 입고 굳건히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위한 준비의 신을 신으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그 방패로 막아서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 쥐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2018년 11월 1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너희 자신의 구원이나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은 어떤 식으로든 사탄의 저항을 받는다는 점을 깨달아라. 많은 경우, 그것은 낙담(의 형태로 다가온다). 내 왕국을 향한 너희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으며, 악의 세력들의 눈에 띄지 않고 넘어가는 법도 없다. 사탄의 가장 큰 무기는 ‘사람들에게 인식되지 않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사탄의 공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이런 사실들을 너희에게 말해준다.”

“대부분의 경우 사탄은 선으로 가장하고 온다. 그러므로, 너희는 반드시 모든 행동 계획이 너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충분히 생각해 봐야 한다. 너희가 상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여라. 항상 진리를 추구하여라. 사탄이 어떤 사람들을 사용할지에 대해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라. 교회나 세상에서 얻은 직함은 악을 막는 장벽이 아니다. 다른 이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영혼들이 사탄의 주요 표적이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또한 악이 너희 삶에 미치는 모든 영향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여라. 만약 그 목적이나 장기적인 결과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그런 상황들은 피하여라.”

“절대 사탄이 너희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있다거나 너희와 싸우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라. 그자는 모든 영혼을 노린다. 모든 죄 하나하나가 그자의 승리다.”

**+ 성경 구절 독서 (히브 3:12-13):**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 계신 하느님을 저버리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는 말이 들리는 한 여러분은 날마다 서로 격려하여,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 완고해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십시오.

2018년 11월 1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사탄이 잘 쓰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용서못함이라는 점을 부디 깨달아라. 그자는 지속적인 마음의 용서못함을 조장함으로써 인간의 마음과 내 신성한 성심 사이에 빈 공간이 형성되게 한다. 이 빈 공간은 완덕에 도달하는 것을 상당히 어렵게 만든다. 사탄이 너희 마음속에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양육하도록 내버려두지 마라. 내 자비를 본받아라.”

“내 자비는 내 아들의 성심을 통해 너희에게 베풀어지며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든 이에게 제공된다. 나는 내 자비를 아끼지 않는다. 너희 또한 마음의 깨우침을 받아들이기를 망설여서는 안된다. 너희가 마음속에 품고 있을지도 모르는 모든 용서못함을 분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나된 예수 마리아 성심에 청원하여라. 이 발견은 회개와 회복을 위한 싸움에서 절반의 승리다.”

“나는 세상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지배를 완화시키기 위해 이런 사실을 너희에게 말해준다. 이것은 세상의 평화를 얻기 위한 커다란 도약이다.”

**+ 성경 구절 독서 (2 티모 2:21-22):**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에서 자신을 깨끗이 씻어 버리면, 귀하게 쓰이는 그릇, 곧 거룩하게 되어 주인에게 요긴하게 쓰이고 또 온갖 좋은 일에 쓰이도록 갖추어진 그릇이 될 것입니다. 청춘의 욕망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받들어 부르는 이들과 함께 의로움과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십시오.

2018년 11월 1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의 가장 큰 노력도 너희의 마음속 거룩한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아무 쓸모 없는 것이 된다. 거룩한 사랑은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인 영원한 구원으로 안내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 그들은 마치 이 세상에서의 삶만 존재하고 내세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나를 기쁘게 해 주려는 생각은 한 적이 없으며 오직 그들 자신만을 만족시키려 한다. 이것은 무질서한 이기적인 사랑이다. 바로 이것이 모든 죄의 기초다.”

“나는 기도를 통해 내가 너희를 인도하도록 너희가 허락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이기적인 사랑에 근거해 결정하지 마라. 나는 사람들의 마음에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를 원한다. 이것이 내가 다시금 세상의 마음 속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기적인 사랑에 근거한) 이런 지혜롭지 못한 선택은 더 많은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낳는다. 이렇게 될 때 오직 자아 실현만을 위한 왜곡된 목표가 세워지고, 이 자아 실현이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것이다. 너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들은 너희 주변 세상으로 흘러 넘쳐 들어가게

된다. 만약 무질서한 이기적인 사랑이 너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 너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손쉽게 악의 도구가 된다.”

#### **+ 성경 구절 독서 (시편 85:5-10):**

저희 구원의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키소서. 저희에 대한 노여움을 푸소서. 끝끝내 저희에게 진노하시렵니까? 당신 분노를 대대로 뺏치시렵니까? 저희를 다시 살리시어 당신 백성이 당신 안에서 기뻐하게 하지 않으시렵니까?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이시고 저희에게 당신 구원을 베푸소서. 하느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는 듣고자 하네.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당신께 충실한 이들에게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그들은 다시 우매함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정녕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는 구원이 가까우니 우리 땅에 영광이 머무르리라.

2018년 11월 20일

####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선교사업은 낙태에 맞서 싸우는 내 화살통 안에 든 화살이다. 과거 세대에서는 절대 낙태가 합법화되거나 정치적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낙태의 수용은 이 나라(미국)의 마음과 세상의 마음을 드러내 보여준다.”

“태내 생명 중 누구를 살리고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인간이 할 일이 아니다. 태내의 모든 생명은 나의 창조물이다.”

“생명에 관한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간주하는) 이런 태도는 인류의 전반적인 마음가짐을 보여준다. 인간은 오직 자유의지 선택에 한해서만 자기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다. 항상 각 영혼의 구원을 염두에 두고 그들의 자유의지 선택을 둘러싼 상황들을 명령하는 이는 바로 나다. 내 인내심의 잔은 넘쳐흐르고 있다. 거룩한 성모는 인류가 의로움으로 돌아오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시간을 더 허락해달라 내게 애원하고 있다. 그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내 진노를 두려워한다.”

“고의적인 시간 낭용은 내 신성한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 내가 인간에게 매 현순간을 주는 것은 인간 자신의 왕국이 아니라 내 왕국을 건설하라고 주는 것이다. 너희는 무엇을 진리로 받아들일지를 지혜롭게 선택하여라. 사탄은 모든 혼란에 관여한다. 너희 자신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하여라.”

#### **+ 성경 구절 독서 (유다 17-23):**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고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에 자기의 불경한 욕망에 따라 사는 조롱꾼들이 나타날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저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로서, 현세적 인간이며 성령을 지니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바탕으로 성장해 나아가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의심하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어떤 이들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해 주십시오.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들의 살에 닿아 더러워진 속옷까지 미워하더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십시오.

**+ 성경 구절 독서 (시편 18:20-24):**

주님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나에게 행하시고 내 손의 결백함에 따라 나에게 갚아 주셨으니 내가 주님의 길을 지키고 나의 하느님을 배반하지 않았으며 그분의 모든 법규를 내 앞에 두고 그분의 규범을 내게서 물리치지 않았기 때문이네. 나 그분께 결백하게 지내 왔고 죄에 떨어질까 조심하였네. 주님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나에게 갚아 주셨네. 그분 앞에서 지켜 온 내 손의 결백함에 따라 갚아 주셨네.

2018년 11월 21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자헌 기념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성전에서 봉헌된 날을 기념하는 오늘 하느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는 남은 신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왔다. 나는 너희가 계속해서 신앙의 전통의 진리 안에서 인내하도록 격려한다. (사람들의 말에) 속아 내 예수님께서 절대 동의하지 않으실 ‘새로운 신학’을 믿지 마라.”

“너희는 전통의 진리들을 옹호하라고 따로 부름 받았다. 성체 안의 내 아드님의 실재적 현존의 진리를 옹호하여라. 예수님께서서는 무관심과 불신 때문에 마음이 크게 상하신다. 용기를 내라. 다른 이들의 잘못된 견해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신앙의 수호자라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나는 남은 신자들의 모후다. 인간의 힘과 의지로는 충분치 않을 때 내게 청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2 테살 2:13-15):**

주님께 사랑받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때문에 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첫 열매로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라고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형제 여러분, 굳건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 성경 구절 독서 (2 티모 4:1-5):**

나는 하느님 앞에서, 또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나타나심과 다스리심을 결코 그대에게 엄숙히 지시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끈기를 다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타이르고 꾸짖고 격려하십시오.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더 이상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 교사들을 모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는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신화 쪽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어 내며, 복음 선포자의 일을 하고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2018 년 11 월 22 일

미국 추수감사절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영원한 현재다. 나는 이 메시지들이 이 세대에, 그리고 이 메시지들에 마음을 열게 될 모든 이에게 전해지고 있음에 감사하다.”

“나는 기도에 마음을 여는 모든 이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나는 그리스도인(트럼프 대통령)이 너희 나라 정부를 이끌고 있음에 감사하다.”

“나는 양심 조명으로 인해 사람들이 악을 알아보게 되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

“나는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나는 나의 계명에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나는 뉘우치는 마음으로 나의 자비를 구하는 모든 이에 대해 감사하다.”

**+ 성경 구절 독서 (골로 3:15b):**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2018 년 11 월 23 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내 성심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거룩한 사랑이다. 나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만 내게 청원하는 이들은 내 성심에서 즉시 내보낸다. 내 성심은 오로지 내 뜻을 만족케 해 주기 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영혼을 굽어보며 그를 완전히 감싼다.”

“나를 사랑하는 영혼은 어떤 상황에서든 내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나를 만유 위에 사랑하는 것은 곧 내 신성한 뜻을 만유 위에 사랑한다는 뜻이다. 내 신성한 뜻을 위해 헌신하는 이런 영혼은 평화를 누리며, 모든 상황이 전개되어 끝날 때까지 기꺼이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다.”

“현 순간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든 다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내 뜻에 대한 너희의 내맡김이다. 낙담과 분노는 내 뜻에 속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뜻을 받아들이는 것은 천국의 보상을 얻을 것이라는 너희의 예정된 운명의 표시다.”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5:1-2, 15-17):**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므로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시간을 잘 쓰십시오. 지금은 악한 때입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2018년 11월 2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오늘 나는 내 지향을 너희에게 권한다. 기도할 때 너희 마음에서 모든 어수선한 것들을 치우고 천상의 것에만 집중하여라. 세속적인 잔해란 너희에게 필요하지 않은 물질적인 것들이며,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다. 상황과 문제 들은 오직 나만이 해결할 수 있다. 기도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의탁하지 못하면 사탄이 그것을 너희 마음의 기도를 약화시키는 무기로 사용한다.”

“나의 가장 중요한 지향은 내가 너희의 기도를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너희가 산만하지 않은 기도를 바쳐주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과 세상에서 바로잡혀야 할 모든 것이 사탄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온다. 사람들이 선을 행하도록 내가 그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방법과 내 전능함에 집중하여라. 모든 악을 이기는 내 힘에 집중하여라. 내 개입의 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여라. 이런 식으로 집중하면 너희 기도가 매우 강력해진다. 그러면 나는 그 기도들을 사용해 세상에서 내 신성한 뜻이 이루어지게 한다.”

**+ 성경 구절 독서 (필리 4:4-7):**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 줄 것입니다.

**+ 성경 구절 독서 (골로 3:1-4):**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2018년 11월 2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성심이 대단히 귀중하게 여기는 보물은 신앙의 진리를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영혼이다. 신앙은 지적 능력과는 별개다. 지적 능력은 증거와 이유를 찾으려 하며, 대부분의 경우 어린아이 같은 영의 적이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진리라고 가르쳐주는 것을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 (이런 영혼은) 신앙에 관한 문제들이 거짓임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는다. 지식인들은 성령의 힘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마음속 영감이 성령임을 인정하지도 않는다.”

“나는 내 신성한 뜻을 이루기 위해 지적 교만을 우회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다. 지식인들은 천상의 은총의 공을 차지하려고 노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영혼을 통해서는 내가 활동하기가 어렵고 또 실망스럽다.”

“겸손해져라. 그러면 내가 나의 뜻의 결실의 경이로움에 너희 마음을 열어줄 것이다.”

#### **+ 성경 구절 독서 (1 코린 2:12-14):**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오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선물에 관하여, 인간의 지혜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로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것을 영적인 표현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세적 인간은 하느님의 영에게서 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기에 그러한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대기 변화에 따라 계절이 바뀐다. 각 계절은 저마다 독특한 특징을 지닌다. 봄에는 갓 올라온 새싹이 자라고, 여름에는 풍부한 햇살과 따뜻함이 있다. 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에는 눈이 내린다. 너희의 마음속에는 항상 믿음의 계절이 있어야만 한다. 이 ‘계절’에는 새로운 교리 즉, 마귀들의 교리에 절대 넘어가지 않겠다는 너희의 거부 의지가 있어야만 한다. 다른 이들에게 신앙의 전통을 지키는, 흔들리지 않는 용기의 길을 보여주어라. 주변 세상의 불신의 ‘계절’에 맞추기 위해 (태도를) 바꾸지 마라.”

“남은 신자들은 용감해야만 하며, 언제나 논란의 폭풍우 가운데 안전한 피난처로서 존재해야만 한다. 남은 신자들은 인생의 어느 순간에 믿음의 불변성을 찾는 이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존재해야만 한다. 내 남은 신자들아, 침착하여라. ‘대기의 압력(세상의 분위기의 압박)’ 때문에 바뀌지 마라.”

**+ 성경 구절 독서 (2 테살 2:13-15):**

주님께 사랑받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때문에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첫 열매로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형제 여러분, 굳건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 성경 구절 독서 (1 티모 4:1-2, 7-8):**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이들은 사람을 속이는 영들과 마귀들의 가르침에 정신이 팔려 믿음을 저버릴 것입니다. 양심이 마비된 거짓말쟁이들의 위선 때문입니다... 저속하고 망령된 신화들을 물리치십시오. 신심이 깊어지도록 자신을 단련하십시오. 몸의 단련도 조금은 유익하지만 신심은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현재와 미래의 생명을 약속해 주기 때문입니다.

2018년 11월 2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의 평화를 파괴하려 노력하고 있는 사탄을 알아보아야만 한다. 그자는 시간과 공간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한다. 너희는 흔히 현 순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인간의 나약함 탓으로 돌린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사실이다. 사탄은 인간의 나약함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이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더 깊게 들어가 많은 경우 인간의 나약함의 원인은 바로 사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한다.”

“너희가 내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내 부성적 품 안에 머무른다면 너희는 너희 주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나 사건들에 대한 사탄의 지배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사탄은 나약한 사람들 즉, 내 계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용해 다른 이들의 나약함을 키운다. 사탄은 바로 이런 식으로 상황을 지배하고 인력을 동원해 악을 조장하는 것이다. 나는 첨단 기술과 정치를 예로 든다. 그러므로, 너희의 현 순간 활동 아래 감춰져 있는 사탄의 동기에 주의하여라. 혼란과 평화 부족이라는 사탄의 특징들을 알아보는 법을 배워라. 이런 식으로 그자의 노력을 나의 선(善)으로 바꾸어라.”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6:10-17):**

끝으로, 주님 안에서 그분의 강한 힘을 받아 굳세어지십시오.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채비를 마치고서 그들에게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한 무장을 갖추십시오. 그리하여 진리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의로움의 갑옷을 입고 굳건히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위한 준비의 신을 신으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그 방패로 막아서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 쥐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18년 11월 2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시작과 끝은 모두 현 순간 안에 있다. 사람들의 마음과 세상에서의 내 승리의 시작은 언제나 현 순간 안에 존재하며 또한 세상에서의 사탄의 공포 시대의 끝도 언제나 현 순간 안에 존재한다. 내 계명 안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내 승리를 선택하여라.”

“사탄의 작은 승리들 때문에 심란해하지 마라. 그자는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다. 내 계명에 순종하겠다는 각 영혼의 ‘예’라는 대답은 모두 사탄에게 있어 패배다. 사악한 자는 인간 사건들의 전개에 관한 한 너희가 용기를 얻기를 원치 않는다. 선과 악의 선택이 이보다 더 분명했던 적은 일찍이 없었다. 오늘날 너희가 세상 어디에서 사탄의 영향을 발견하더라도 거기에 놀라지 마라. 사탄은 지금 필사적이다. 그자는 자신이 절멸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안다. 계속 기도하여라. 남은 신자들로서 일치하여라. 너희에 대한 반대는 모두 악에서 비롯된 것이니, 그것들에 도전하여라.”

####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4:1-6):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수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과 온유를 다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참아 주며,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 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하나의 희망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고, 만물의 아버지이신 하느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만물을 통하여, 만물 안에 계십니다.

2018년 11월 2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거룩한 성모는 (예수의) 십자가 발치에 서 있었던 것처럼 어려움과 십자가가 존재할 때마다 항상 너희 곁에 서 있다는 사실을 부디 깨달아라. 그녀의 중재 기도는 아무도 필적할 수 없다. 그녀는 중대한 문제를 작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만들어준다. 또한 모든 상황 주위에, 그리고 모든 상황을 통해 은총의 무늬를 짠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한 성모가 상황을 변화시키면서 모든 문제의 중심에서 너희와 함께 한다는 점을 깨달아야만 한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은총이다. 너희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거룩한 성모의 손길이 모든 일에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녀의 중재는 모든 이가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큰 은총이다. 그녀는 모든 해결책의 중심에 있다. 그녀는 사람들을 사용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그녀의 도구가 되곤 한다. 거룩한 성모는 인정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그녀의 노력은 언제나 사람들을 나에게, 그리고 예수에게 더 가까이 이끄는 데 있다. 이 사실을 신뢰하는 것은 너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

**+ 성경 구절 독서 (요한 19:25):**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2018 년 11 월 30 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이 신기술의 시대에 수많은 은총을 받았다. 이 모든 것들은 현세의 삶이 좀 더 유쾌해지도록 하기 위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다. 어리석게도 이런 (기술) 혁신들이 인간의 재주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하지 마라. 너희의 발견과 발명은 모두 내 풍부한 은총의 일부다.”

“요즘 시대에 신기술은 일부 악한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 태내에서 목숨을 잃은 태어나지 않은 아기들(unborn)이 의약품과 식품에 섞이고 있다. 음란물은 지금까지 그리스도적이었던 가정의 젊은이들 마음속에 침투하면서 활기를 띠며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수많은 성소의 신성함이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도전 받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것들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어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세상을 좀 더 ‘좁게’ 만들기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서 이 기술을 사용하도록 이것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준 것들 대부분은 마치 내가 외설 행위와 ‘부정한’ 이익을 승인하는 것처럼 왜곡되었다.”

“너희는 타협된 진리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언제나 모든 목표의 진실과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은총을 너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관한 진실을 찾아라. 돈을 너희의 목표로 삼지 마라. 나를 기쁘게 하고 또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너희의 목표로 삼아라.”

**+ 성경 구절 독서 (2 티모 3:1-6):**

이것을 알아 두십시오. 마지막 때에 힘든 시기가 닥쳐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돈만 사랑하고 허풍을 떨고 오만하며, 남을 중상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 모르고 하느님을 무시하며, 비정하고 매정하며, 남을 험담하고 절제할 줄 모르며, 난폭하고 선을 미워하고 배신하며, 무모하고 교만하며, 하느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면서, 겉으로는 신심이 있는 체하여도 신심의 힘은 부정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들 가운데에는 이 집 저 집에 몰래 들어가, 갖가지 욕정에 이끌려 죄에 빠져 있는 어리석은 여자들을 사로잡는 자들이 있습니다.